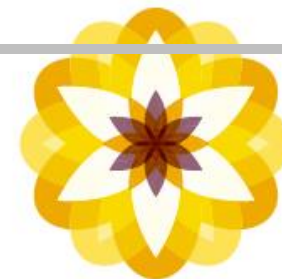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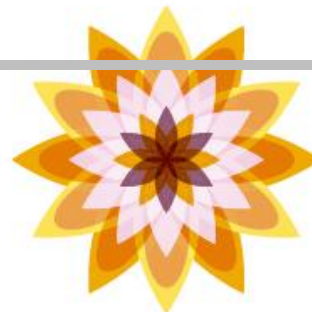


삼성 GSAT



# 1. 시험전 알아야 할 팁

---

- ❖ GSAT는 단편적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평가
- ❖ 모든 영역 고르게 준비하기! (과락존재)
- ❖ 암기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한 문제들 출제!





## 2장. 수리영역 기출문제



# 1. 수리논리

- ❖ 수학공식 및 계산능력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
- ❖ 수학기본 공식 암기 및 정확하고 빠른 계산 연습필요
- ❖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연습 필요
- ❖ 시간단축이 관건!
- ❖ 정석대로 풀지 않고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방법!



# 1. 수리논리

1. A와 B가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등산을하기로 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이고, A와 B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75%, 80%이다. 내일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 ① 24%
- ② 32%
- ③ 38%
- ④ 42%
- ⑤ 49%



# 1. 수리논리

2. 어느 기업의 전국 21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을 분석하였다.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대리점들의 평균 매출액은 28억원이고, 연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대리점들의 평균 매출액은 7억 원이었다. 또한 전체 대리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17억 원일 때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대리점의 수는 몇 개인가?

- ① 100개
- ② 110개
- ③ 120개
- ④ 130개
- ⑤ 140개



# 1. 수리논리

3. 여객 열차는 길이가 12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 8초가 걸린다. 초속 15m의 속력으로 달리는 길이 80m의 화물 열차가 여객 열차와 서로 마주 보고 달릴 때, 완전히 지나치는 데 4초가 걸린다. 이때, 이 여객 열차의 길이는?

- ① 60m
- ② 65m
- ③ 70m
- ④ 75m
- ⑤ 80m



# 1. 수리논리

4. 5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 ① 1440가지
- ② 1460가지
- ③ 1480가지
- ④ 1500가지
- ⑤ 1520가지



# 1. 수리논리

5. A와 B 두 팀이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0 :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여 승부차기를 하였다. 각 팀당 5명의 선수가 A팀부터 시작하여 10명이 교대로 승부차기를 할 때, B팀이 5 : 4로 이길 확률은? ( 단, 각 선수의 승부차기는 독립시행이고 성공할 확률은 0.8이다. )

- ①  $0.8^7$
- ②  $0.8^8$
- ③  $0.8^9$
- ④  $0.8^{10}$
- ⑤  $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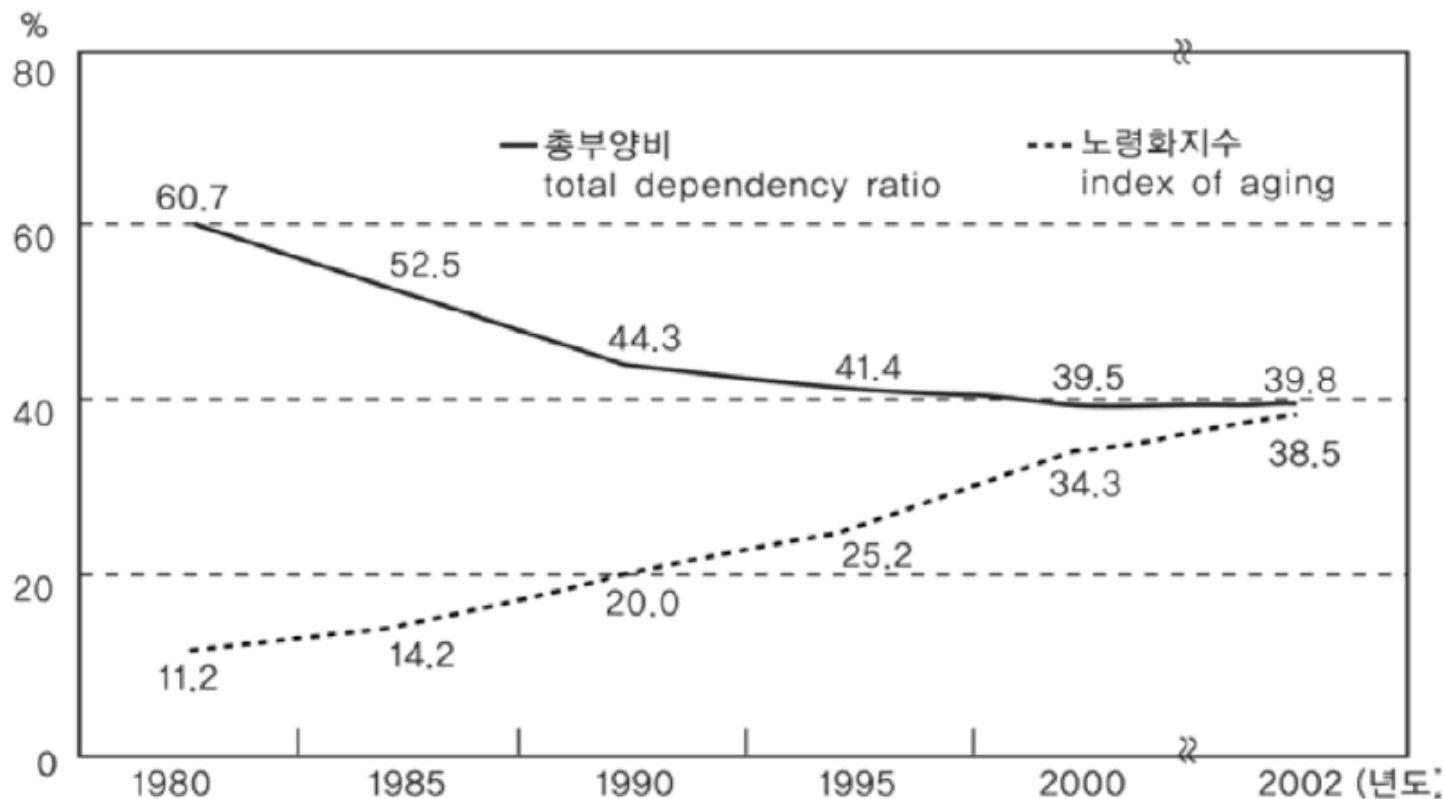


# 1. 수리논리

6. 다음 그래프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조사중의 일부다.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잘못 추론한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총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Total Dependency Ratio and index of Aging



# 1. 수리논리

6. 다음 그래프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조사중의 일부다.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잘못 추론한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가) 노령화 지수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급속히 상승하였다.
- (나)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 (다) 1980년 이후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비는 줄어들고 있다.
- (라)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정비례한다.

- ① (가)
- ② (나)
- ③ (가), (다)
- ④ (나), (다)
- ⑤ (나), (라)



# 1. 수리논리

7. 다음 표는 우리나라 학교급별 공교육비와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한 통계자료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한 곳 중에서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는? ( 단,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위(학교 : 백만 원, 1인당 교육비 : 천원)

공교육비	2011년	2012년	2013년
초등학교	7558912	7832421	6334523
1인당	1997.5	2018.2	1765.8
중학교	4216599	4734652	4135425
1인당	2001.2	2300.4	2108.8
고등학교	5232345	5324525	4720383
1인당	2405.5	2461.8	2220.2
전문대학	2356580	3052842	-
1인당	2860.0	3005.5	-
교육대학	150888	150765	153782
1인당	5830.9	5376.8	6001.8
일반대학	7315230	7549758	7985623
1인당	5280.3	5098.7	5120.2



# 1. 수리논리

7. 다음 표는 우리나라 학교급별 공교육비와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한 통계자료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한 곳 중에서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는? (단,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10%
- ② 12%
- ③ 14%
- ④ 16%
- ⑤ 18%



# 1. 수리논리

- ❖ 다음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특별시·광역시별 실업률과 연령별 실업률을 조사한 자료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연령별 실업률 분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8~9)

[특별시·광역시별 실업률]

(단위 : %)

지역 \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2.5	2.7	7.6	7.0	4.8	4.5
부산	3.5	3.9	8.9	9.1	6.5	5.2
대구	3.1	3.8	7.9	7.1	4.7	4.6
인천	2.4	3.4	8.4	7.9	4.9	4.2
광주	2.7	3.1	7.7	7.7	5.6	4.6
대전	2.7	2.9	6.4	6.4	4.5	4.1
울산	-	-	6.4	6.4	4.2	3.9
전국	2.0	2.6	6.3	6.3	4.1	3.8

# 1. 수리논리

- ❖ 다음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특별시·광역시별 실업률과 연령별 실업률을 조사한 자료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연령별 실업률 분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8~9)

[연령별 실업률]

연령 \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29세	4.6	5.7	12.2	10.9	7.6	7.5
30~39세	1.2	1.6	5.6	5.2	3.3	2.9
60세 이상	0.4	0.8	2.4	2.3	1.3	1.1
전체	2.0	2.6	7.0	6.3	4.1	3.8



# 1. 수리논리

## 8.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다.
- ②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15~29세 인구비율도 가장 높다.
- ③ 특별시·광역시보다 그 외 지역의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더 낮다.
- ④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모든 특별시·광역시의 실업률은 2008년에 최고치에 달했다.
- ⑤ 15~29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못미친다.



# 1. 수리논리

## 9.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부산의 실업률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 ① 3.7%
- ② 5.6%
- ③ 6.5%
- ④ 8.2%
- ⑤ 9.5%



# 1. 수리논리

❖ 다음은 2013년 시도별 국내인구이동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2013년 시도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이동자 수(명)			이동률(%)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국	623,006	623,006	0	1.23	1.23	0.00
서울	119,741	131,098	-11,357	1.20	1.31	-0.11
부산	40,244	41,335	-1,091	1.15	1.18	-0.03
대구	28,429	29,182	-753	1.14	1.18	-0.03
인천	41,389	39,006	2,383	1.45	1.37	0.08
광주	19,692	19,969	-277	1.34	1.36	-0.02
대전	20,036	19,934	102	1.32	1.31	0.01
울산	14,476	14,064	412	1.26	1.22	0.04
세종	1,662	1,129	533	1.40	0.95	0.45

# 1. 수리논리

❖ 다음은 2013년 시도별 국내인구이동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경기	164,436	160,975	3,461	1.36	1.33	0.03
강원	17,350	16,715	635	1.14	1.09	0.04
충북	16,784	16,492	292	1.07	1.06	0.02
충남	22,466	21,386	1,080	1.10	1.05	0.05
전북	22,605	21,931	674	1.22	1.18	0.04
전남	20,360	19,395	965	1.08	1.02	0.05
경북	26,866	25,715	1,151	1.00	0.96	0.04
경남	39,758	38,626	1,132	1.20	1.17	0.03
제주	6,712	6,054	658	1.14	1.03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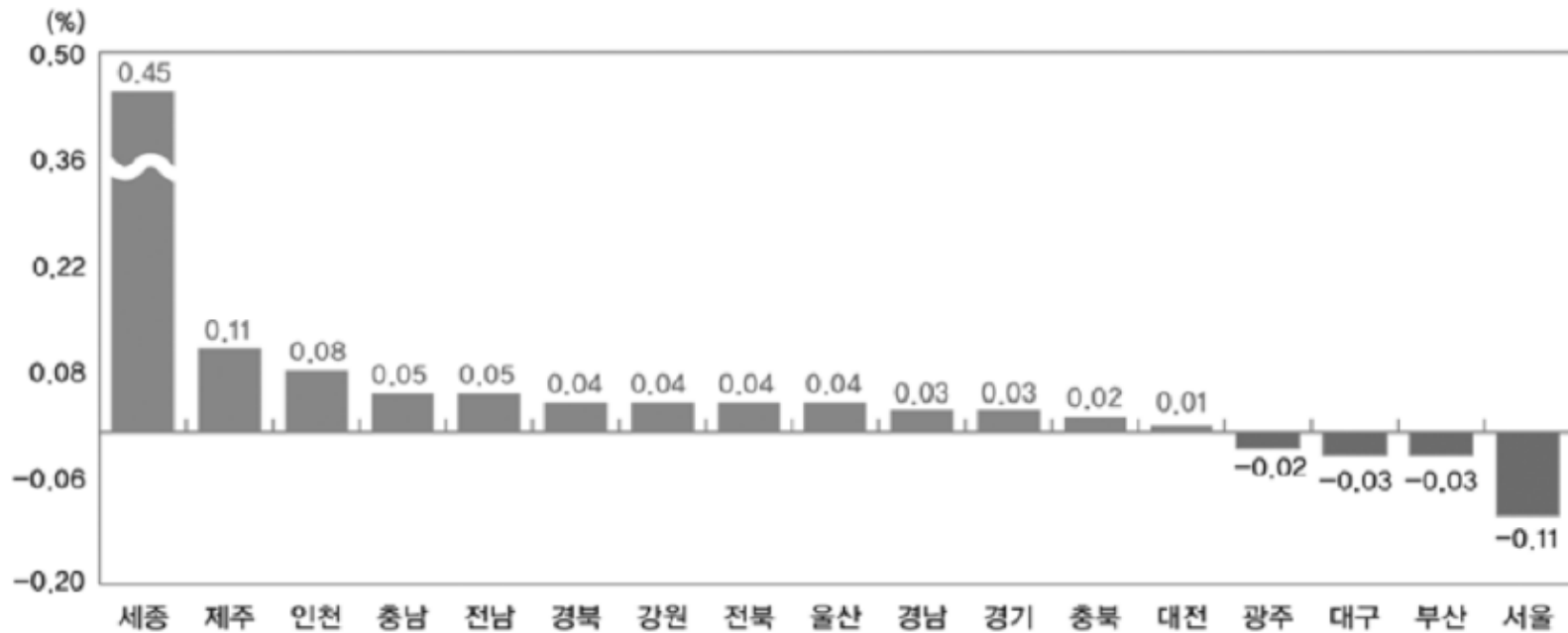
\* 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한다.



# 1. 수리논리

- ❖ 다음은 2013년 시도별 국내인구이동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2013년 시도별 순이동률]



# 1. 수리논리

## 10.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순이동률이 가장 높다.
- ② 세종시와 서울시의 순이동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크다.
- ③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서울이다.
- ④ 총전출률이 가장 낮은 지역의 총전입률이 가장 높다.
- ⑤ 세 번째로 총전입자 수가 많은 지역과 세 번째로 총전출자 수가 많은 지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 1. 수리논리

11. 순이동률 상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의 총전출자 수 차이는 몇 명인가?

- ① 17249명
- ② 161426명
- ③ 155426명
- ④ 138651명
- ⑤ 111231명



# 1. 수리논리

❖ 다음은 2015년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12 ~13)

[여가생활에 대한 가치관]

(단위 : %)

연령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보다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노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삶(중복응답)					
	수입 선호	보통	여가 선호	취미 활동	소득 창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자기 계발	손자녀 양육
전체	17.6	35.6	46.8	58.8	55.1	35.4	39.3	43.3	26.3
15~19세	13.6	34.6	51.7	68.0	61.2	40.0	36.8	55.5	22.0
20~29세	12.8	32.1	55.1	68.4	61.6	40.3	40.9	53.7	21.5
30~39세	15.0	34.5	50.5	65.5	60.8	38.5	37.4	50.1	26.9
40~49세	16.7	36.8	46.6	60.5	60.7	36.7	38.8	45.8	28.5
50~59세	18.8	36.9	44.3	55.8	53.1	34.9	41.5	37.5	30.8
60세 이상	26.3	37.6	36.1	39.8	36.7	24.7	39.3	24.4	25.1

# 1. 수리논리

❖ 다음은 2015년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12 ~13)

[가구소득별 실제 주 여가활동 및 희망하는 주 여가활동 유형]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구분		여가활동 유형별											
		계	TV, 비 디오 시청	문화 예술 관람	창작적 취미 활동	운동 경기 관람	운동	여행, 야외 나들이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사회 봉사 활동	종교 활동	휴식	기타
참 여 율	200만 원 미만	100.0	58.7	4.4	1.3	2.2	4.4	6.1	3.6	0.5	6.7	11.8	0.1
	200~300만 원 미만	100.0	44.8	6.4	3.6	2.4	6.9	9.6	7.2	0.7	8.1	10.3	0.0
	300~400만 원 미만	100.0	45.1	7.3	4.5	2.8	5.8	8.9	7.0	0.9	7.2	10.3	0.1
	400~500만 원 미만	100.0	42.6	7.4	4.6	3.1	5.6	9.6	7.0	1.3	8.0	10.8	0.1
	500만 원 이상	100.0	37.4	7.9	4.8	2.8	6.6	10.4	7.6	1.6	9.8	10.9	0.1
희 망 율	200만 원 미만	100.0	28.3	9.3	3.8	3.3	7.1	26.8	3.4	1.6	6.8	9.6	0.1
	200~300만 원 미만	100.0	20.0	11.0	6.0	4.1	9.2	30.4	4.8	1.1	5.7	7.6	0.1
	300~400만 원 미만	100.0	20.1	11.7	6.5	4.9	9.5	27.6	5.2	1.4	5.8	7.0	0.1
	400~500만 원 미만	100.0	17.1	11.8	7.2	4.9	8.8	29.3	5.6	1.8	6.5	6.9	0.0
	500만 원 이상	100.0	12.4	12.5	6.8	4.5	10.5	31.7	5.2	1.7	7.3	7.3	0.1



# 1. 수리논리

**12. 노후에 종교활동을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수입선호 비율은 전체 수입 선호 비율보다 몇 % 높은가?**

- ① 4.8%
- ② 4%
- ③ 1.2%
- ④ 0.9%
- ⑤ 0.5%



# 1. 수리논리

## 13.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연령층에서 노후에 소득창출보다는 취미활동을 선호한다.
- ② 나이가 어릴수록 수입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 ③ 손자녀양육에 관한 선호도는 나이와 크게 관계가 있지 않다.
- ④ 여가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과 노후에 소득창출을 가장 희망하는 연령층은 동일하다.
- 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을 선호한다.



# 1. 수리논리

❖ 다음은 2014년 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5)

[지출목적별 동향 및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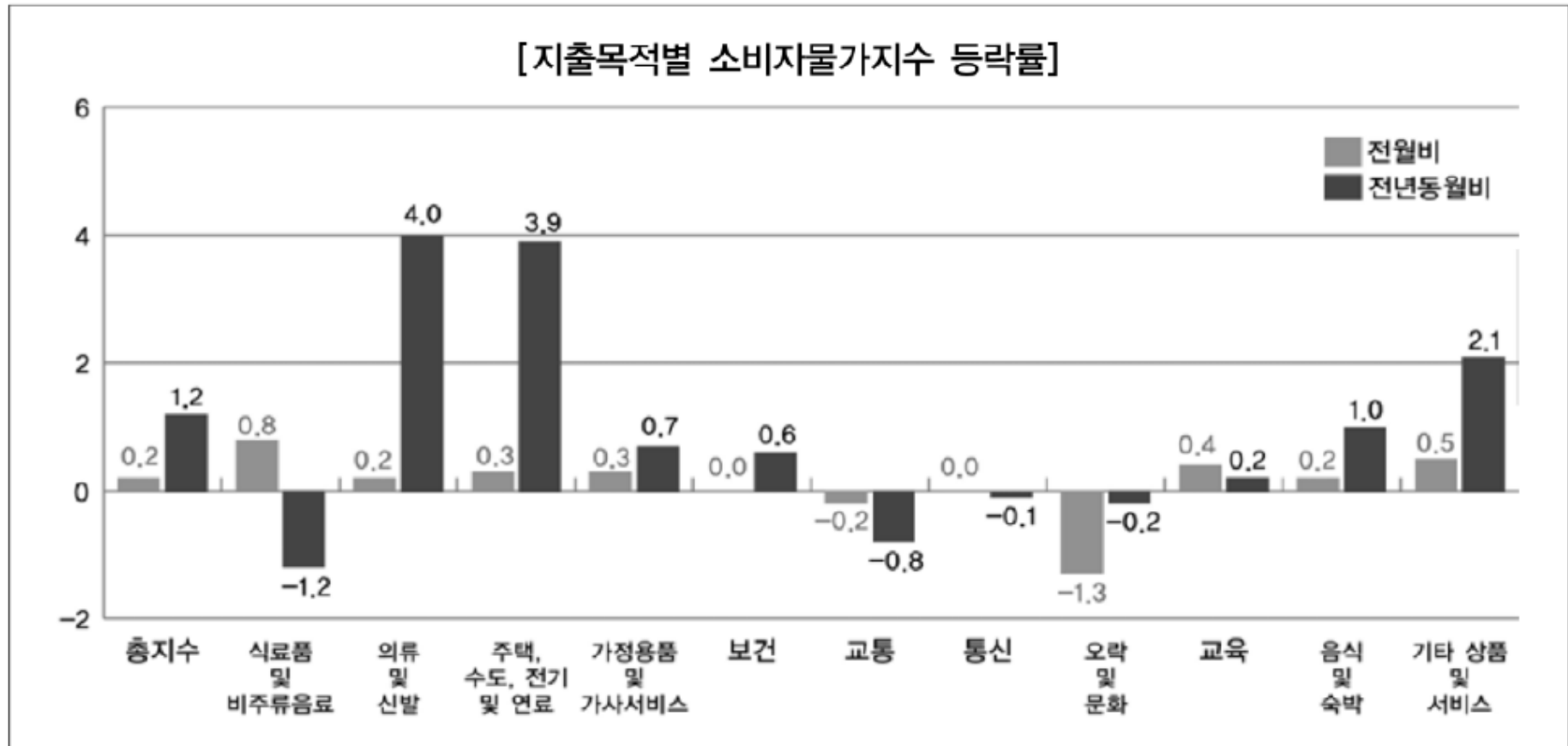
(2010 = 100.0, %, %p)

지출목적별 부문	품목 수	가중치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기여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4	129.3	111.97	0.8	-1.2	0.10	-0.16
의류 및 신발	34	62.2	114.60	0.2	4.0	0.01	0.25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21	223.7	116.50	0.3	3.9	0.07	0.8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	35.7	108.84	0.3	0.7	0.01	0.02
보건	28	70.5	104.14	0.0	0.6	0.00	0.04
교통	32	93.9	110.03	-0.2	-0.8	-0.02	-0.08
통신	8	55	95.79	0.0	-0.1	0.00	-0.01
오락 및 문화	64	51.6	101.78	-1.3	-0.2	-0.07	-0.01
교육	20	102.8	104.96	0.4	0.2	0.04	0.02
음식 및 숙박	42	116.9	107.80	0.2	1.0	0.03	0.1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1	48.1	102.75	0.5	2.1	0.02	0.10



# 1. 수리논리

❖ 다음은 2014년 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5)



# 1. 수리논리

## 14.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 수가 상위 25% 이내인 부문의 가중치 역시 상위 25% 이내이다.
- ② 전월과 비교하여 주류 및 담배, 보건, 통신 부문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이 없다.
- ③ 교통, 오락 및 문화 부문만이 전월비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였다.
- ④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이 가장 큰 부문은 의류 및 신발 부문이다.
- 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부문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이다.



# 1. 수리논리

**15. 전년동월비 기여도가 가장 낮은 부분의 2013년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 ① 약 101.98
- ② 약 110.92
- ③ 약 111.08
- ④ 약 113.33
- ⑤ 약 121.01



# 1. 수리논리

- ❖ 다음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정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물음에 답하십시오.(16~17)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정의 소득과 소비 변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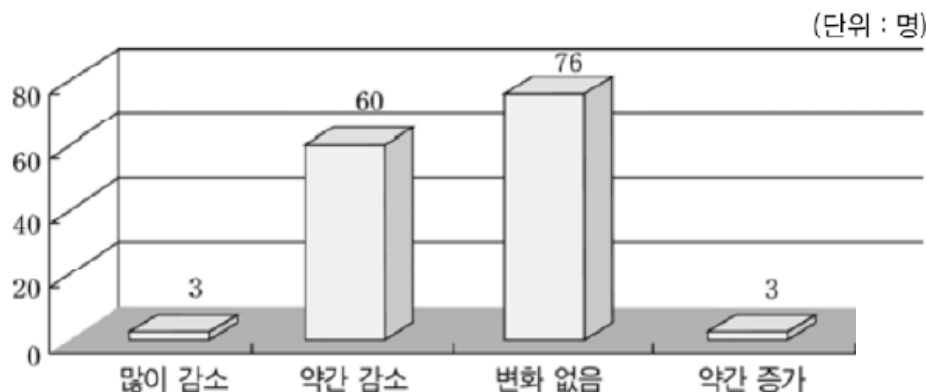
(단위 :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서 가정소득이 줄어든 것 같다.	10	21	70	56	12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후 부족한 소득 보충을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40	65	33	23	8
소득이 줄더라도 주5일 근무제의 실시를 찬성한다.	8	7	22	56	76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서 가정의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2	9	27	11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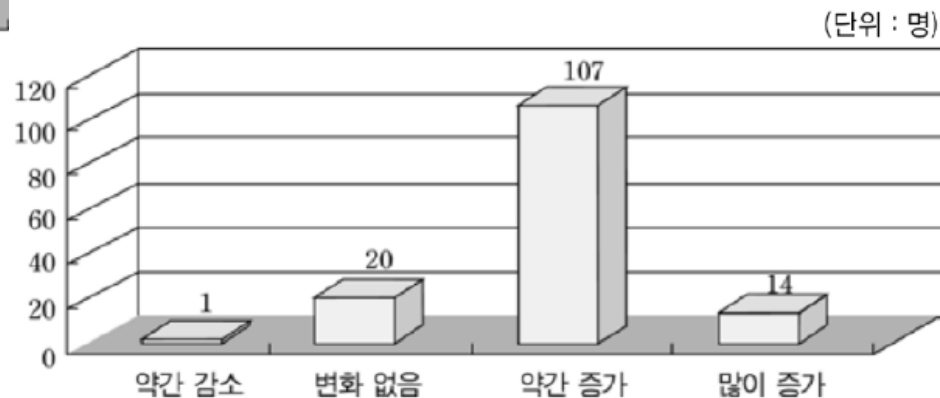
# 1. 수리논리

- ❖ 다음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정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물음에 답하십시오.(16~17)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계의 소득 변화]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 1. 수리논리

**16.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부와 보통으로 생각한다는 주부의 비율의 합은 전체 응답자의 몇 %인가?**

- ① 약 90%
- ② 약 88%
- ③ 약 82%
- ④ 약 78%
- ⑤ 약 72%



# 1. 수리논리

**17.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의 비율은 실제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과 몇 % 차이가 나는가?**

- ① 약 18.5%
- ② 약 15.4%
- ③ 약 11.6%
- ④ 약 7.7%
- ⑤ 약 3.2%



# 1. 수리논리

❖ 다음은 성별 \* 연령별 혼인건수와 미혼율에 대한 표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0)

[성별 · 연령별 혼인건수]

(단위 : 건, %)

연령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1992년				2002년				2012년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07,821	99,080	100.0	100.0	72,696	70,548	100.0	100.0	71,695	71,839	100.0	100.0
19세 이하	452	2,479	0.4	2.5	180	631	0.2	0.9	72	209	0.1	0.3
20~24세	11,346	40,226	10.5	40.6	2,905	10,859	4.0	15.4	1,086	3,283	1.5	4.6
25~29세	61,060	43,040	56.6	43.4	32,012	38,842	44.0	55.1	16,910	29,807	23.6	41.5
30~34세	26,174	8,275	24.3	8.4	25,411	12,218	35.0	17.3	32,560	25,921	45.4	36.1
35~39세	4,640	2,741	4.3	2.8	5,718	3,523	7.9	5.0	11,580	6,172	16.2	8.6
40~44세	1,792	1,144	1.7	1.2	2,816	2,195	3.9	3.1	4,157	2,418	5.8	3.4
45~49세	1,034	588	1.0	0.6	1,552	1,235	2.1	1.8	1,920	1,534	2.7	2.1
50세 이상	1,313	569	1.2	0.6	2,101	1,040	2.9	1.5	3,410	2,495	4.8	3.5



# 1. 수리논리

❖ 다음은 성별 \* 연령별 혼인건수와 미혼율에 대한 표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0)

[성별 · 연령별 미혼율]

(단위 : 천 명, %)

연령별	미혼인구 및 미혼율											
	1990년				2000년				2010년			
	미혼인구		미혼율		미혼인구		미혼율		미혼인구		미혼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576.3	1,262.5	40.0	31.3	1,574.9	1,235.3	39.5	30.5	1,592.2	1,360.5	39.5	32.0
19세 이하	556.3	527.9	99.9	99.6	408.1	374.5	99.7	99.5	331.5	302.1	99.8	99.7
20~24세	550.1	496.8	97.0	84.8	481.0	437.7	98.4	93.2	337.4	337.4	99.3	98.0
25~29세	354.3	168.7	61.9	29.4	422.6	277.5	77.8	52.6	398.2	368.7	90.7	80.2
30~34세	89.3	43.4	16.6	8.1	166.6	79.9	35.2	18.2	253.8	178.1	58.9	41.7
35~39세	17.4	14.8	4.1	3.4	57.4	30.5	13.7	7.2	139.6	85.3	32.5	20.3
40~44세	4.7	5.3	1.3	1.5	24.0	17.6	5.8	3.9	69.1	40.2	17.5	10.0
45~49세	2.1	2.5	0.7	0.9	8.4	8.4	2.5	2.3	33.9	19.7	8.9	4.9
50세 이상	2.0	3.1	0.3	0.4	6.8	9.3	0.8	0.9	28.7	28.9	2.2	1.9



# 1. 수리논리

**18. 2002년 대비 2012년의 남성 혼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 ① 25~29세
- ② 30~34세
- ③ 35~39세
- ④ 40~44세
- ⑤ 50세 이상



# 1. 수리논리

## 19.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성의 주혼인 연령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여성의 주혼인 연령층은 20대 후반이다.
- ② 남녀 모두 20대 초반의 혼인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 ③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의 40~44세 여성 미혼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④ 2010년 30대 여성의 미혼률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⑤ 남녀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 수리논리

**20. 2000년과 2010년 사이 30대 남녀의 미혼 증가율 차이는 약 몇 %인가?**

- ① 42%
- ② 48%
- ③ 55%
- ④ 60%
- ⑤ 63%





Thank You

